

국제유가 변동이 충남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류 승 민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 요 약 >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출 부진, 충남지역 수출은?

‘2014년 6월말 이후 국제유가 70% 이상 하락’

2014년 중반 배럴당 100달러 이상 수준에서 머물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혁명 쇼크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OPEC 산유국간 생산량 합의 불발과 美 달러화 강세가 겹치면서 올해 초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은 제조단가 절감, 석유제품 가격 인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국제유가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유가급락에 따라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원유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8.0% 감소, 충남지역 수출은 3.1% 증가’

2015년 우리나라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수출단가 하락,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축소와 수입대체 진전 등으로 전년 대비 8.0% 감소세를 시현하였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은 석유제품(MTI 133, -37.0%), 합성수지(MTI 214, -15.1%)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671.2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충남 지역의 수출이 지역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원유 수입국으로 이뤄지고 품목별로는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유가 영향 적은 충남 수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에 충남지역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제조업 시설이 석유제품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저유가는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충남 지역의 수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중국·미국·베트남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중국과 홍콩 수출에 전체 수출의 59.6%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충남지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충남지역은 중화권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인도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 소재 석유·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은 최근의 나프타(납사)-원유 마진 확대로 확보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1. 최근 국제유가 동향

‘2014년 6월말 이후 18개월 연속 하락 후 50달러 수준까지 회복’

- . 2014년 6월말 배럴당 100달러 수준에서 머물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금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1일 배럴당 22.8달러로 최저점을 기록
- . 이는 美 타이트 오일(Shale Oil) 생산 확대와 OPEC 회원국 간 생산량 동결 합의 실패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원유 공급 증가,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부진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 하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6월 단기전망보고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원유 수요 증가와 함께 저유가 지속에 따른 美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금년 전 세계 석유 공급과잉이 2015년 보다 96만 배럴/일 감소한 97만 배럴/일, 2017년에는 29만 배럴/일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
- . 또한 최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의 특성상 달러 가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 그 결과 지난 6월 9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49.0달러를 기록했으며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Brent유와 WTI는 6월 8일 각각 배럴당 52.5달러, 51.2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

<유종별 국제유가 추이>

(단위: 배럴/달러)

유 종	2014	2015	2016.2	2016.3	2016.4	2016.5
DUBAI	96.6	50.7	28.9	35.2	39.0	44.3
BRENT	99.5	53.6	33.5	39.8	43.3	47.7
WTI	92.9	48.8	30.6	38.0	41.1	46.8

자료: 페트로넷

‘6월 2일 OPEC 생산량 합의 실패는 예견되었던 일’

- . 6월 2일(목)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169차 OPEC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생산량 목표 합의에 실패하였음
- . 블룸버그 통신이 총회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7명의 시장전문가 중 26명이 OPEC의 생산 목표 합의 실패를 예상하는 등 시장은 생산량 동결뿐만 아니라 생산량 목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갈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최근의 유가 상승으로 인해 산유국들 간 생산량 합의 필요성이 축소되었기 때문
- . OPEC의 생산량 합의 실패가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국제 원유거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으며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후 ICE 선물시장 Brent 8월물과 NYMEX 선물 시장 WTI 7월물 모두 하락세를 보였으나 EIA 美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Brent와 WTI 모두 상승으로 마감

‘2016년 국제유가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 향후 국제유가는 5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국제유가 향방은 원유 재고 수준, 美 셰일 업계의 생산 동향, 그리고 달러화 가치에 달려 있음
- . EIA, OPEC 등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전 세계 원유 공급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국제유가 소폭 상승에 따른 美 셰일 업계의 생산 재개 또한 유가 상승기만큼의 폭발적인 원유 공급 증가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하반기 국제유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
- .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美 금리인상 이벤트 등은 달러 강세를 유발하여 국제유가의 상승을 일정 부분 제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전망기관들에 따르면 2016년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배럴당 41.2달러, WTI 배럴당 40.3달러, Brent유 40.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 국제유가 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1)’

- . 2014년 6월 말 이후 18개월 만에 70% 이상 급락한 국제유가의 변동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부정적인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를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됨
- . 이는 유가급락에 따라 원유 수출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 당초 기대만큼 원유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증가하지 않음에 기인
- . 일반적으로 원유 수입국에 미치는 유가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원유 수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유로 지역과 같은 원유 수입국 소비자들의 소득 상승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원유 수출국의 한계소비성향보다 높음에 기인

1) “Oil Prices and the Global Economy: It’s Complicated”, Maurice Obstfeld(2016.3.24., IMF)를 참고

. (원유수출국) 중동아프리카 원유수출국 GDP 성장률은 2014년 2.7%에서 2015년 1.9%로 예상보다 저조하며 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부채부담이 높고 자금차입 여력이 낮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내 지출이 급감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음

* 러시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14.0('13) → 17.8('14) → 20.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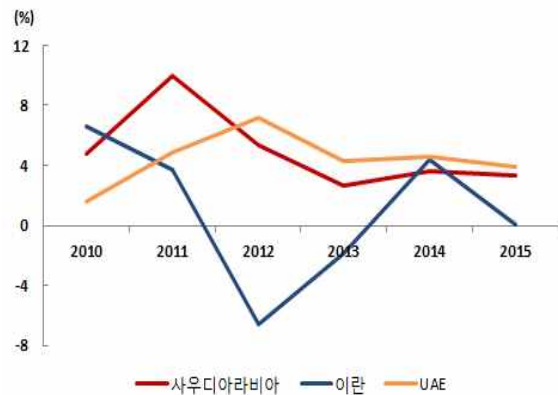
*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52.1('13) → 51.8('14) → 53.0('15)

- 또한 유가 하락이 본격화 된 2014년 중반 이후 원유 수출국들이 경제 안정을 위해 국부펀드 자산을 인출하는 등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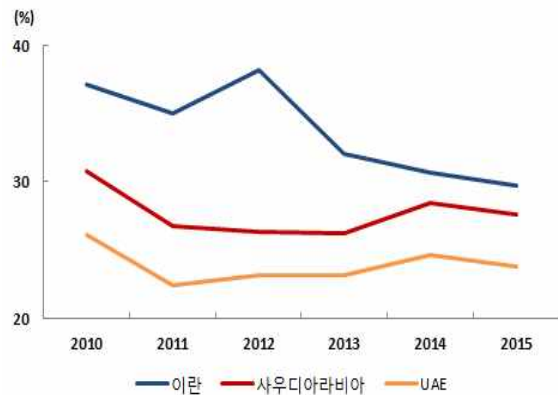
* 2015년 중동아프리카 원유수출국 재정수입은 3,900억 달러(지역 GDP의 17.5%) 감소하였으며 금년 추가적으로 1,500억 달러 손실이 있을 것으로 전망(IMF)

* 2015년 산유국 국부펀드는 2,130억 달러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Sovereign Wealth Funds Institute, 자본시장연구원)

<경제성장률>



<GDP 대비 투자 비중>



* 자료: IMF

. (원유수입국) 유로 지역에서는 소비 진작, 경제 회복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 및 신흥국 등에서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저조

- 원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미국 등의 자원개발 회사의 투자 급감 및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나 향후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 하락세가 완화되면서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E&P 회사들은 2015년 근무인력의 16%를 해고하였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는 약 19% 감소하여 1999년 - 12%, 2009년 - 9% 수준을 상회(Rystad Energy, 2015.12)

- 원유 수입국이지만 비철금속 및 곡물 등을 수출하는 신흥국들의 경우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은 품목별·지역별로 상이’

-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원유 기반 제품과 원유 생산시설 관련 제품의 수출을, 지역별로는 對원유 수출국으로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 반면 자동차와 같이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의 수출과 對원유수입국으로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한편,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금액의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주로 자본재 및 소비재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등으로 2009년부터 2015년 기준 국제유가와 성질별 수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자재 0.69, 자본재 0.50, 소비재 0.46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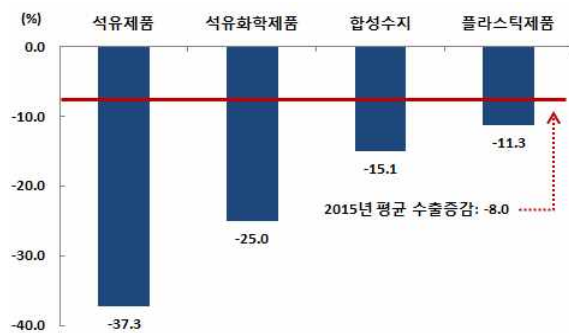
- (원유 기반 제품: **부정적**)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원유 기반 제품의 수출비중은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가 10% 하락 시 생산단가가 석유제품은 7.7%, 석유화학제품은 2.0% 하락하여 수출단가하락을 불러오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기준 동 제품들의 수출금액 증감률은 전체 평균 -8.0%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

<유가 10% 하락이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

품목명	증감률(%)
석유제품	-7.70
석유화학제품	-2.00
항공기	-1.57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1.23
수산물	-1.16
도자기 및 요업제품	-0.92
화학섬유	-0.88
플라스틱제품	-0.71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3) 활용 국제무역 연구원 자체 추정

<원유 기반 제품의 수출 증감률(2015)>



자료: 한국무역협회

- (원유 생산시설 관련 제품: **부정적**) 美 타이트 오일(Shale Oil) 생산과 함께 증가 추세를 보였던 철강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새로운 해양 먹거리로 평가되던 원유시추용 해양 플랜트 등의 수출은 유가 하락과 함께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對미국 철강관의 수출물량 증감률은 2014년 30.5%에서 2015년 -42.3%로 급감*하였으며 국내 조선 3사의 시추선 신규 수주는 2013년 18척, 2014년 2척, 2015년 0척으로 2016년 6월 초 현재 신규 수주는 전무한 상황

* 원유 가격 하락으로 주요국의 정유 사업 연기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中 Sinopec, 美 Marathon Petroleum 등은 자본지출 및 시설투자에 대한 결정을 감축 혹은 연기하고 있음

- . (원유 수출국으로의 수출: 부정적) GDP 대비 원유수출비중이 높은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베네수엘라, 이란 등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전 세계 평균 2.3%를 하회하였으며 과거 저유가 시기에도 주요 산유국의 수입물량 증감률은 전 세계 수입물량 증감률 보다 낮았음
 -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주요 산유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이란)의 수입물량 증감률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시현(84년: -13.0%, 85년: -23.2%, 86년: -24.1%)하였음
 - * 반면 유가 상승이 7년 동안 지속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 산유국의 수입물량 증감률은 전 세계 수입물량 증감률을 상회하는 모습
- . (석유를 동력원으로 하는 제품의 수출: 긍정적) 유가 하락에 따라 자동차 사용에 대한 연료비 부담 감소로 자동차 구매 수요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15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대수는 1,747만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
 - 다만, 러시아, 리비아, 요르단 등 원유 수출국으로의 수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부진한 모습을 시현
- . (원유 수입국으로의 수출: 긍정적)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입 대비 원유 수입비중과 원유 소비량이 높은 국가(인도·한국·일본)로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던 84년~86년과 91년~94년 원유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수입물량 증감률은 각각 6.9%, 9.2%(각 기간별 전 세계 평균: 6.2%, 6.1%)
 - * 반면 유가 상승이 본격화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원유 수입비중이 높은 3개국의 수입물량 증감률은 전 세계 수입물량 증감률을 하회하는 모습
- . (자본재 및 소비재 수출: 중립적) 유가 10% 하락이 품목별 생산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반도체, 통신기기 등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며, 실제 2015년 기준 수출금액 증감률은 반도체 0.7%, 무선통신기기부품 33.5% 증가를 시현

<유가하락에 따른 품목별·지역별 수출 영향>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수출 ▶ 원유 수입국으로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유 기반 제품 수출 ▶ 원유 생산시설 관련 제품 수출 ▶ 원유 수출국으로의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재 및 소비재 등으로 원유를 원재료로 하지 않는 품목의 수출

주: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수출금액으로 분석하였으며 수출로 인한 영업이익 등에 대한 영향은 이와 상이할 수 있음

3. 충남지역 수출구조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

‘유가 하락이 충남지역 수출에 미친 영향은 미미’

- 최근 3년 평균 기준 충남의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 홍콩, 미국, 베트남, 대만 순으로 전체 수출 대비 상위 5개 수출국 비중은 77.2%인 것으로 분석
- 최근 3년 평균 기준 충남의 주요 수출품목(MTI 3단위 기준)은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 센서,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컴퓨터로 전체 수출 대비 상위 5개 품목 비중은 69.2%를 기록
- 지역별·품목별로 볼 때 충남의 수출 구조는 상대적으로 국제유가의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2014년 6월 말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2015년 수출금액은 3.1%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8.0%를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를 시현

<지역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3	2014	2015
중국	30,602	29,022	29,471
홍콩	8,114	7,852	10,543
미국	4,848	4,826	4,950
베트남	2,543	3,086	5,556
대만	3,123	3,085	2,208

주: 순위는 3년 평균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품목별 수출>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13	2014	2015
반도체	17,717	18,011	16,304
평판 디스플레이	15,783	14,396	14,638
석유제품	5,180	5,597	4,302
무선 통신기기	1,958	3,252	8,790
컴퓨터	2,643	3,347	3,989

주: 순위는 3년 평균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최근 3년 평균 전체 수출 대비 주요 수출 지역의 비중이 77.2%, 주요 품목의 수출 비중이 69.2%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품목별·지역별 교차 분석을 수행해본 결과,
 - 주요 수출지역으로 수출되는 품목들은 국제유가 하락에 생산단가 변동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였으며,
 - 주요 수출품목이 수출되는 지역들은 중국, 베트남 등을 포함한 원유 수입국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충남지역의 주요 수출 품목 및 지역 교차 분석>

지역별 주요 수출품목	국 가	5大 수출품목
	중국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홍콩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선박 및 부품, 석유제품, 합성수지
	미국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반도체, 석유제품
	베트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기구부품, 자동차
	대만	반도체, 석유제품, 기초유분,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제조용 장비

품목별 주요 수출지역	품 목	5大 수출지역
	반도체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 일본
	평판디스플레이	중국, 멕시코, 베트남, 슬로바키아, 터키
	석유제품	호주, 싱가포르, 중국, 미국, 대만
	무선통신기기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컴퓨터	중국, 미국, 홍콩, 필리핀, 체코

주: 5大 수출품목 및 수출지역은 2015년 수출금액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최근 3년 간 충남지역의 수출 호조 지역별·품목별 현황’

- . (지역별) 최근 3년 간 충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국가는 베트남, 호주, 인도, 헝가리로 파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은 유가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자동차 부품 등이 선전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5년 기준 수출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

- (베트남) 무선통신기기(185.0%), 반도체(24.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561.1%)
- (호 주) 석유제품(73.4%), 종이제품(31.9%), 플라스틱제품(20.3%)
- (인 도) 반도체(-20.4%), 무선통신기기(566.0%), 석유제품(392.5%)
- (헝가리)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30.7%), 자동차부품(192.6%), 기타충전기(0.0%)

* ()안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기준이며 품목 기준은 MTI 3단위

- . 특이할 점은 對호주 수출 상위 품목이 국제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석유제품, 플라스틱 제품이라는 것인데 이는 수출 물량 증가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단가하락 영향을 상쇄했음에 기인

* 석유제품 물량 증감률(MTI 133, %): 142.1('13년) → 139.8('14년) → 184.0('15년)

* 플라스틱제품 물량 증감률(MTI 310, %): 82.2('13년) → 78.2('14년) → 33.0('15년)

- . (품목별) 최근 3년 간 충남 수출이 꾸준히 증가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MTI 812), 컴퓨터(MTI 813), 자동차부품(MTI 742), 계측제어분석기(MTI 815)로 파악*되었으며 동 품목들에 대한 수출은 주로 원유 순수입국에 대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15년 기준 수출 상위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 (무선통신기기) 홍콩(227.1%), 중국(108.5%), 베트남(185.5%), 인도(556.0%)
- (컴퓨터) 중국(8.2%), 미국(28.5%), 홍콩(248.3%), 필리핀(31,573.1%)
- (자동차부품) 중국(27.4%), 미국(-1.0%), 멕시코(42.3%), 인도(51.8%)
- (계측제어분석기) 중국(72.5%), 베트남(116.0%), 대만(96.3%), 일본(91.4%)

* ()안 증감률은 2014년 대비 2015년 기준이며 품목 기준은 MTI 3단위

‘원유 관련 제품과 산유국으로의 수출은 저유가에 영향 받을 수밖에’

- . 국제유가 변동에 수출 영향을 적게 받는 충남지역이라 하더라도 원유 관련 제품과 산유국으로의 수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 실제로 2015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 중 석유제품(MTI 133, -23.2%), 석유화학중간원료(MTI 212, -15.1%), 합성수지(MTI 214, -22.5%), 기초유분(MTI 211, -43.1%) 등의 수출 감소는 2015년 충남 지역의 수출 상승폭을 제한하였음
- . 예상대로 주요 산유국인 인도네시아(-37.0%), UAE(-20.3%), 러시아(-18.2%), 이란(-28.4%)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예상 외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49.2% 성장세를 시현하였음
- . 이는 2015년 기준 충남 지역의 對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 호조에 기인하며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태가 他 주요 산유국 대비 저유가에 대응할 여력이 있었기 때문임
- . 다만,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요 산유국이 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이 고갈되어 對산유국 수출이 부진해질 것으로 예상
- . 충남 지역 對OPEC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이 2016년 부진해짐에 따라 OPEC으로의 수출 또한 2015년 8.6% 증가에서 2016년 4월까지 -11.3%로 전환

4. 충남 수출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충남 수출에 국제유가는 영향력 낮은 외생변수일 뿐’

- . 충남 지역의 1위, 2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가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국제유가 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아 국제유가 변동은 충남 수출에 있어 영향력이 낮은 외생변수에 불과함
- . 한편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제품은 유가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미국·인도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충남지역 수출은 국제유가 변동보다 주요 교역국 경기에 달려’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지역의 수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수출 부진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단기적으로는 중국·미국·베트남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성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가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에 충남지역의 수출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며 대다수의 제조업 시설이 석유제품을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저유가는 제품 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중국과 홍콩 수출에 전체 수출의 59.6%가 집중되어 있어 중국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충남지역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화권 외 미국·베트남·인도 등의 수출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임

‘석유 및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은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

- . 충남 지역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 수출기업들은 단순 수출 단가 변동에 따른 매출액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원재료와 가공제품 간 영업이익(마진) 확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함
- . 원유 기반 제품들 중 유가 변동에 따른 생산단가 영향이 원자재에서 소비재로 갈수록 낮아지는 점(석유제품 > 화학제품 > 합성수지 > 플라스틱제품)을 감안할 때 최근 나프타-원유 간 마진 확대에 확보된 현금자산을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힘써야 할 것임